

고하 송진우선생 탄신 125주년 / 서거 70주기 추모식 추 모 사

오늘은 존경하는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125주년 탄신일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광복 70주년이며, 선생님께서 서거하신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나와 같이 금년에도 선생님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많은 분들께서 이 곳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진 선생님의 유택(幽宅) 앞에 모여 선생님의 항일독립과 민족자강, 그리고 민주건국의 숭고한 정신을 회상하면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해는 세계경제가 극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면에서 계속 흑자(黑字)를 가져왔고, 연간무역액도 전년도에 이어 1조억 불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는 경제개발 3개년계획을 세워 당면한 경제난국의 극복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제2의 중동건설 붐을 조성해 나가는 등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하 선생님,

선생님께서 펼치신 많은 애국운동(愛國運動)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이인호 KBS 이사장님께서 봉독해주신 선생님의 약전(略傳)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이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일제 암흑기에도 우리의 밝은 미래를 직시(直視)하시고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위하여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신 선생님의 애국(愛國) 애족(愛族) 애민(愛民) 운동은 우리역사의 선각자(先覺者)로서 미래에 대한 선견(先見)을 가지시고 우리의 선두(先頭)에 서서 이끌어 가시는 큰 지도자(指導者)로서의 역할을 다하신 것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크나큰 교훈(教訓)과 감명(感銘)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몇 가지를 더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도 없었고 일제(日帝)의 탄압이 극심했던 시절 민족의 구심점으로서 선생님께서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도 정열을 쏟으셨던 동아일보가 김재호(金載昊) 사장을 중심으로 2011. 12월에 개국한 “채널A”와 더불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1920년 일제(日帝)의 잔혹한 무단통치에 항거하여 민족의 표현기관을 자임하고 출범한 동아일보는 금년에 창간 95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분단체제를 넘어 한민족 모두가 행복한 통일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선생님 생가와 새로 건립한 “근대역사문화교육관(近代歷史文化教育館)”은 건물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었고 지난해에 진입로 확장정비, 전신주 등 장애물 이전, 축대의 보강 등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이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선생님 탄신 125주년, 광복 70주년, 서거 70주년이 되는 금년에 선생님의 일대기를 누구나 알기 쉽게 엮은 만화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독립과 건국의 등불 고하 송진우”라는 제목의 이 만화책이 우리 청소년들이 고하 선생님의 애국애족정신을 쉽게 이해하고 계승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 선생님의 영전에 봉정하오며 오는 10월 20일에는 본 기념사업회 김학준 이사님의 지도를 받아 선생님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선생님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의 약전을 봉독해주신 이인호 KBS 이사장님, 추모사를 해주실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님, 안홍순 광복회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추모강연을 해주실 윤덕영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님에게 고하 송진우 선생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손이신 송상현 박사는 세계적으로 국제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계속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중책을 맡아 12년간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信賴)와 국격(國格)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기간 봉사해왔던 유니세프한국위원회(UNICEF 유엔아동기금) 회장으로로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여성의 권익증진에도 크게 노력할 것입니다.

고하 선생님,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은 아베정권이 집권한 후 일제의 망령이 되살아나 위안부

문제 등 불행한 한일관계의 근대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국제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군국주의 부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한일간의 고대사를 왜곡하는가 하면, 특히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하는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현실에 온 겨레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역사는 언제나 진리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선생님의 정신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하 선생님, 저희들은 선생님이 끝까지 펼치지 못하셨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여 이 나라를 부강한 선진 복지국가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추모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5월 8일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